

넥센타이어, 고급 타이어 N7000 런칭

넥센타이어가 제동력과 핸들링, 빗길주행 안정성 뿐만 아니라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인 신제품을 개발하고 타이어 시장공략에 나섰다.

넥센타이어는 3월6일 서울 임페리얼팰리스호텔에서 <신제품 N7000> 발표회를 갖고 고급 자동차와 수입 자동차의 증가추세에 맞추어 고급타이어 수요를 겨냥한 N7000을 출시하고 본격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신제품 개발을 위해 18개월 동안 4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했으며, 해외 우수 평가기관의 테스트를 통해 우수성을 검증받았다.

N7000 모델은 자동차의 고성능화 추세와 사계절 변화가 뚜렷한 한국의 지형과 기후특성, 운전습관을 다각도로 고려한 제품으로, 타이어 성능기준의 중요요소인 안정성과 제동성능 뿐만 아니라 소음을 최소화시켜 승차감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N7000은 타이어 패턴에 새로운 화음설계 기법을 적용해 타이어 주행시 발생하는 음의 높이(Pitch), 음의 크기(Loudness), 음색(Timbre) 등을 최적화했으며 표면 마찰력을 감소시켜 유체(물과 공기) 흐름과 진동을 크게 줄였다.

아울러 4개의 그루브를 채용해 빗길 배수능력을 극대화해 빗길주행 안정성과 제동성능을 강화시켰다.

<화학저널 2007/03/07>